

<2020년 2월 9일 주일말씀>

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

본 문 예레미야 10장 18절

『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

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

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』

<말씀 시작>

- ◆ 오늘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<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말씀>은
<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>과
<그 시대 이방 민족들>에게 ‘하나님이 하신 말씀’입니다.

하나님은 시대마다

<자신의 말씀을 전한 대변자>를 세워서 말씀하셨는데,

그 시대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는 ‘예레미야 선지자’였습니다.

- ◆ 그 시대에 <택한 이스라엘 민족>은
<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>을 따라서
<신상들>을 만들어서 섬기고 소원을 빌며
우상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.

이에 하나님은 <예레미야 선지자>를 통해서

<택한 이스라엘 민족>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

그 많은 말씀 중의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.

지금 <예레미야서의 모든 말씀>을 다 읽어 볼 수 없으니,
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 있는
<예레미야 10장 말씀의 일부>를 전해 주겠습니다.

- ◆ “너희는 <우상>을 섬기고 <우상> 앞에 소원을 빌면서
비가 오게 해 달라 하고 바람이 불게 해 달라 하느냐.

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.

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.

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,
<그들이 섬기는 것>은 ‘삼림에서 벤 나무’ 요,
‘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’ 이요,
‘은과 금으로 꾸민 것’ 이며,
‘못과 장도리로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’ 이니라.

그것은 말도 못 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 하여
도리어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.

그것들이 사람들에게 ‘화’ 를 주거나 ‘복’ 을 주지 못 하니,
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
<하나님이 택한 자들>에게 외쳐 가르쳤습니다.

“그들은 다 ‘무지하고 어리석은 것’ 이니
〈우상의 가르침〉은 ‘나무’ 뿐이라.

〈오직 여호와〉는 ‘참 하나님’ 이시요,
‘살아 계신 하나님’ 이시요, ‘영원한 왕’ 이시라.

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,
그 분노하심을 ‘이방’ 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.

〈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〉은
‘땅 위’ 에서, ‘이 하늘 아래’ 에서 다 망하리라.

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‘땅’ 을 지으셨고
그의 지혜로 ‘세계’ 를 세우셨고
그의 명철로 ‘하늘’ 을 펴셨으며,
땅 끝에서 ‘구름’ 이 오르게 하시고
그 구름으로 ‘비’ 를 만들고 ‘바람’ 이 불게 하여
합당한 곳에 쏟아지게 하셨느니라.

그런데 사람이 조각하여 만들어
〈말도 못 하고 주지도 못 하는 우상〉 앞에 절하며 소원을 빌고
그것들을 두려워하느냐.

결국 〈사람이 조각한 신상〉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니,
그것들은 ‘거짓된 것’ 이요, ‘망령되이 만든 것’ 으로
결국 ‘멸망할 것’ 이니라.” 했습니다.

◆ 하나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.

◆ 또 “내게 돌아와라. 나 여호와와는 ‘너희의 남편’ 이니라.”

하시며 그 애타는 심정을 말씀하셨지만
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역시 듣지 않고,
마치 ‘남편을 속이고 집을 나간 아내’ 처럼
계속해서 ‘우상과 신상’ 을 섬기며
그것 앞에 소원을 빌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.

◆ 하나님은 속이 터지고 마음이 상하셔서,
마치 ‘마음의 증상’ 을 입은 듯 충격을 받으셨습니다.

그 상한 마음을 스스로 풀기도 하셨지만,
사람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니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“보라. 이번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내던질 것이라.
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.” 하셨습니다.

◆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‘이웃나라’ 에 의해 고통을 받고,
이방으로 끌려 다니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.

하나님께서 몇 번이나
〈하나님의 방법〉대로 온전하게 살라고 하시며
〈우상〉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나,
계속 돌이키지 않으니 〈하나님의 심판〉을 받았습니다.

◆ 〈구원받아야 할 택한 자들〉이

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니,

하나님은 ‘자신이 받는 괴로움’ 을 그들도 받게 하셨습니다.

이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
괴로움을 받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.

그들이 깨달으니, ‘하나님의 고통’ 도 사라졌습니다.

<전환>

- 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온전하게 살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는데
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
마치 <남편을 속이고 집을 나간 아내>처럼 살면,
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.

이에 하나님은 ‘괴로움’ 을 당하게 하여,
스스로 깨닫게 해 주고야 마십니다.

- ◆ 하나님은 <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자들>에게
사명자들을 통해 수도 없이
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.

특히 <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는 민족>을 향해서
수없이 깨우쳐 주고 역사해 주셨습니다.

그러나 <그 민족이 지도자>부터 ‘교만과 고집’ 으로 행하고,
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‘민족의 근성’ 으로 행하고,

그 백성들조차 지도자들을 따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

결국 하나님은 그 민족을 내던지셨고,
그로 인해 ‘병과 죽음’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.

이로 인해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!!

- ◆ 하나님과 성령께서 ‘그 행위’를 깨닫게 하시는데,
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!!

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

<그 땅에 거하는 자들>이 모~~두 괴롭게 되니,
<하나님의 마음과 심정>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고
<자기 죄로 인한 고통>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

- ◆ 각 나라도 하나님이 내던지사 괴롭게 하시니,
이제는 모두 자신들에 대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

<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>이 ‘괴로움’을 당하게 함으로
<하나님의 괴로운 마음>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!

사람들이 ‘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음’으로
하나님과 성령께서 ‘큰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신다는 것’을
꼭 깨달아야 됩니다!

- ◆ <하나님께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
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>을 듣지 않고
자기를 중심하고, 자기를 섬기고,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고,

사람과 우상만 두려워하고 사니,
<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>을 괴롭게 함으로
잘못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!

◆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

<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받은 충격과 괴로운 마음>이 사라집니다.

이같이 <병과 고통>으로 괴로움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하면,
<더 극한 괴로움>을 받고 <영원한 고통>을 받을지도 모릅니다.

그러니 모두 정신 차리고 지난날의 죄들까지 다 회개하고,
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.

◆ 하나님은 ‘사람이나 어떤 것을 우상시하며 사는 자’를
최고로 엄하게 다루고 형벌을 주십니다.

<전능하신 삼위일체>와 <그 보내신 자> 외에
<다른 사람>이나 <다른 것>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자를
최고의 천법을 범한 자로 보시고 책망하며 심판하십니다.

◆ 하나님은

“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외에 절대 다른 신은 없다.” 하시며,
“만일 있다면 저주하며 멸한다.” 하셨습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이 시대의 모든 기성인들에게

지난 40년 동안 <새 시대 하나님의 말씀>을 전해 줬지만,
그들은 외면하고, 등지고, 구시대만 따랐습니다.
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그들에게도 ‘각종 고통’을 주어 괴롭게 함으로
<나 여호와와 시대 사명자의 행함>을 깨닫게 했다.”

하셨습니다.

◆ <이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>은

<하나님과 주의 마음>을 괴롭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 주었으니,
하나님께서 <우리의 마음>도 ‘기쁘게 해 주심’으로
<하나님의 기쁜 마음>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. (아멘!)

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심판 받을 행위를 하는 자들>은 ‘심판’을 받게 하고
<축복 받을 행위를 하는 자들>은 ‘축복’을 받게 하여,
스스로 깨닫게 하리라.” 하셨습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

“나 여호와와 성령 앞에 감사하고,
나 여호와와 성령을 사랑해라.” 하셨습니다.

“<지난날의 고통>을 생각하며 깨달아라.

이제는 <하나님의 주권>에서 살게 되었으니

<감사와 기쁨과 희망의 삶>이다.

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면

나 여호와와 성령의 마음도 기쁘다. 사랑이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오늘 말씀을 듣고, 꼭 깨닫기 바랍니다.

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며
그들이 자기 교만과 고집과 근성으로 살지 않도록 해 주었지만,
그들은 끝내 듣지 않고 자기 근성대로 살았습니다.

이로 인해 결국 ‘괴로움의 심판’을 받았습니다.

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으니, 그 기간은
<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깨닫고 회심하는 기간>이 되었습니다.

이때는 <하나님의 사람, 예레미야>가
눈물로 기도해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.

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,
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, 외치지도 않았습니다.

스스로 깨닫고 회심하고,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.

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외쳤지만 끝내 듣지 않으니,
하나님은 ‘괴로움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.

이때는 기도해 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.

그러니 <잘못 행한 자들이 깨닫게 해 달라는 기도>만 해 주고,
<우리가 행할 것들>을 행하고 있으면 됩니다.

◆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에게
<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>이
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!

◆ 말씀 마치겠습니다.

◆ 이번 주에는 모두 <예레미야서>를 읽어 보고,
그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이 시대를 꼭 깨닫기 바랍니다.

<축도 후, 광고>

현재 <신종 코로나 바이러스>로 인해서
여러 가지 선교 행사와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.

그러나 여기서 선교나 영적인 분위기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.

각 교회는 현 상황에 대해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하되,
이때 <영적 분위기와 흐름>이 깨지지 않도록
계속해서 연구하며 행할 것들을 꼭 행해야 됩니다.

<말씀 풀 영상 제공>에 한계가 있다면
모든 말씀들을 <잠언>으로 정리하여 끝없이 제공해 주어
말씀의 가뭄이 들지 않도록 해 주고,
이런 때 <강사들을 양성>하는 등 할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.

<강사 양성>은 기존의 틀을 깨고,
<시대 십자가 기간 10년 동안 전해 준 주일, 수요말씀>을 토대로
스스로 연구하고 말해 보면서
<자기만의 강의안>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.

지금은 또 다른 시대입니다.

지금 이때에 맞는 감각적인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려면,
어서 중고등부, 캠퍼스들이 감각적으로 연구하고 나서야 됩니다.

<한국의 중고등부>는 벌써 ‘강사 양성’을 시작했고,
이제 <한국 캠퍼스>도 시작합니다.

다른 나라, 다른 부서도 연구해서 꼭 실행하기 바랍니다.

그리고 <신종 코로나 바이러스>로 인해
선생님과 섭리 모두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,
오히려 이때를 ‘기회’로 잡고 <새로운 콘텐츠>를 준비했습니다.

선생님께서 <V-log>를 시작하셨습니다!

<브이로그>란,
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데,
선생님께서 <브이로그>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려 합니다.

첫째, <섭리사 전체를 위한 영상>
둘째, <중고등부를 위한 영상>
셋째, <캠퍼스를 위한 영상>으로 시작합니다.

세상에서는 <유튜브>나 <각종 공유 사이트>를 통해서
영상을 제공한다면,
섭리사에서는 <팜스테이션>을 통해 영상을 제공합니다.

또한 <중고등부>와 <캠퍼스>는
모두 이곳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며 대화하도록
<부서 창>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.

이어서 <주님의흰돌교회>와 <목회학과 창>도 따로 만들어서
여기서 각종 교육을 ‘3분 영상’ 으로 올릴 계획입니다.

그리고 <선생님과 조은 목사의 인터뷰 형식의 신앙 교육과 상담>도
계획하여 곧 실행할 예정입니다.

<팜스테이션의 기본 운영>을 위해서는 <정보료>가 필요합니다.
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, <기본 운영>을 위한 것입니다.

앞으로 2월까지 섭리 전체에 ‘무료’ 로 운영합니다.

오직 섭리사의 발전과 소통과 결합을 위한
<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팜스테이션>이 될 것입니다.